

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강화 1000만원 직접 집행·협의체 신설

학교 현장 업무·예산 부담 완화
온라인 플랫폼 통해 신속 자문
고난이도 소송시 협의체 공동대응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자문 확대, 소송비용 직접 지원, 소송협의체 신설 등 학교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대상 소송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위한 체계적 법률 지원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소송지원 강화 방안은 ▲법률 자문 강화 ▲예산·전문인력 직접 지원 ▲소송협의체 운영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학교 자문 지원은 기존 1인 고문변호사 의존 체계에서 다층적 자문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 법률 SO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위험 사안 발생 시 신속히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한다.

둘째로 소송비용과 전문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가 행정소송을 직접 대응하고 소송비용도 자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송비용(최대 1000만 원)을 직접 집행해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학교 소송협의체도 신설된다. 복합시설 운영 등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 기존에는 학교가 단독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교육청, 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 협의체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학교 요청에 따라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 구성되며, 전문적 판단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대응을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금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상한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2학기 학자금 대출은 금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3일,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8일까지다. 생활비는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등록금은 실제 소요액 전액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개인별 총한도가 적용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기간 중이라면 요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구독대학' 시범운영... 수강생 모집

고려대·경희대 등 10개 대학 참여

서울시가 대학 강의를 '구독'하는 시대를 연다. 시민이 원하는 강의를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에서 직접 골라 듣는, 맞춤형 평생학습 모델이 본격 도입된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이 듣고 싶은 강의를 원하는 대학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독대학'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시범운영 한다

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구독대학은 직업훈련 중심의 기존 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인문교양, 문화예술, AI·디지털 등 지적 호기심과 자기계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홍익대 등 10개 주요 대학이 참여해 총 15개 강좌를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개설한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지역 학생 AI·SW 미래교육 지원

두산에너지리티-LIG넥스원 업무협약

성남시가 지역 학생들을 세계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산업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철 두산에너지리티 부사장,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산에너지리티와 LIG넥스원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성남고, 판교고 등 5개교 학생들을 대상으



성남시는 지난 30일 성남시는 지난 30일 두산에너지리티, LIG넥스원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동철 두산에너지리티 부사장, 신상진 성남시장,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용산 신창·구로 개봉 등 선정
연내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서울시는 30일 '20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2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공도 탈락 사유 해소 여부 ▲주민 갈등 상황 ▲진출입로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해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해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개봉동 153-19

〈20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자치구	위치
용산	신창동 29-1 일대
구로	구로동 466 일대
구로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	방학동 641 일대
동작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	상도동 201 일대
성북	삼선동 1가 277 일대

/서울시

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결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이번 후보지로 선정돼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

입로 요건을 충족했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향후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대상지 동측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시진핑 실각설 보도 영향?...中, 단결투쟁·반부패로 '안팎 다잡기'
▲ 이스라엘, 가자지구 해변 카페 공습...“40명 넘게 사망”

/사진 뉴시스

▲ 트럼프발 관세 유예 종료 임박...각국, 협상 혼란 속 '눈치 전쟁'
▲ 이란 “美와 대화하려면 시간 필요...우라늄 농축 재개 준비돼”

▲ 차기 연준 의장설 베네토...“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것”
▲ 백악관 “9일까지 일본 외 다른 무역상대에 초점 맞출 것”